



기후변화 위험에 따른 선진국 연기금의 투자정책방향

김혜란 연구원

캘리포니아 주는 올해 8월 말 가장 큰 연기금인 CalPERS와 CalSTRS에 대해 투자이사 결정 시 기후관련 재무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상원법안을 통과시킴. 이 법안에서 기후관련 재무위험이 처음으로 정의되었으며, 재무위험은 물리적·소송·규제 및 전환과 같은 다양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음. 두 연기금은 기후관련 재무위험 관리 활동 뿐 아니라 탄소발자국 그리고 2015년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도 보고해야 함. 한편 유럽과 영국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 및 시행할 예정임. 유럽 연기금은 기후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투자위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, 올 여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투자정책에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

- 올해 8월 말 캘리포니아 주는 가장 큰 연기금 2개에 대해서 투자이사 결정시 기후관련 재무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상원법안을 통과시킴¹⁾
 -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(이하 ‘CalPERS’)와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(이하 ‘CalSTRS’)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기후변화 위험을 파악하고 가입자와 사법부에 보고해야 함
 - CalPERS와 CalSTRS 두 기금에서 약 5천 9백 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음
 - 첫 번째 보고는 2020년까지로 2035년까지 3년마다 보고해야 함
 - 이는 기후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공무원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함임

- 이 법안에 의해 기후관련 재무위험이 처음으로 정의되었으며 물리적·소송·규제 및 전환과 같은 다양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음²⁾

1) IPE(2018. 9. 3), “Biggest US pension funds ‘must consider climate-related risks”

2) San Diego Free Press(2018. 8. 9), “SB 964 Will Require Largest U.S. Pensions to Report on Climate Risk”

- 물리적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격렬기상(호우나 태풍·낙뢰·폭염과 같은 큰 피해를 가져오는 기상 현상)이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및 경제적 손실에 관한 것임
 - 소송 위험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위험 경감 및 손해배상을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됨
 -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와 관련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기업들을 고소하고 있으며, 미국에서 기후관련 손실로 화석연료회사를 고소한 경우가 총 16건으로 나타남
 - 규제 위험은 정부가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책과 법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임
 - 위와 같은 경우 규제 위험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기업을 선호하는 경제적 변화로서 전환 위험이기도 함
 - 탄소배출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기 위해 사업을 완전히 전환하지 않으면 친환경을 추구하는 경제에서 주주들에게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임
- 두 연기금은 기후 관련 재무위험 관리 활동뿐 아니라 탄소발자국(Carbon footprint) 및 캘리포니아 기후정책 목표와 2015년 파리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도 보고해야 함
- 탄소발자국은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의미함
 - 캘리포니아 주는 2045년까지 주 내에서 발전되는 전기 전량을 무탄소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³⁾하는 등 기후변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음
 - 2015년 파리협약 목표는 산업화 이전의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것이며,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여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함⁴⁾
- 한편, 유럽과 영국에서도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 및 시행할 계획⁵⁾
- 2017년 보험에 의해 보전된 대참사 관련 손실은 110억 유로로 기후변화는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금융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
 -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6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유럽의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힘
 - 연기금 및 보험회사, 자산운용사, 투자 자문 기관과 같은 투자자는 투자 의사 결정이 ESG 목표와 일치해야하며, 이를 준수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도 공시해야 함
 - ESG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포트폴리오 선별과 운용에 있어 기존의 재무적 분석에 더해 기후변화, 인권 등과 같은 비재무적인 환경, 사회 및 지배구조(Environmental, Social and Governance) 이슈

3) NY(2018. 8. 28), "California Lawmakers Set Goal for Carbon-Free Energy by 2045"

4) 환경부(2016. 5),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

5) FT(2018. 8. 13), "Environmental risk heats up for pension investors"

를 고려하는 투자 접근 방법임⁶⁾

- 영국에서는 연금수탁자가 투자할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정적으로 중대한 위험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가입자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2019년 10월 1일부터 실행에 옮겨야 함⁷⁾

■ 유럽의 연기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투자 포트폴리오 위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투자정책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

- 2018년도에 유럽 연금펀드의 17%만이 기후변화로 인한 투자위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 2017년도에 비해 불과 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⁸⁾
- 올 여름에 유럽 전역의 고온현상,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전역의 가뭄, 일본의 홍수 및 태풍,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불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발생하였음
- 이로 인해 연금관리자들은 지금까지는 투자정책에 급진적인 변화를 꺼려했으나, 위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가 시급해보임 [kiri](#)

6) 박영서(2018. 3. 26), ESG를 활용한 자산운용 전략, 기업지배구조리뷰

7) Reuters(2018. 9. 12), “British pension schemes to disclose climate change strategy”

8) Mercer, The investment consultant’s 2018 survey